

- **주요 뉴스:** 미국 라치몬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 필요
 - BofA, 주요 기업 실적발표 시작. 초기 결과는 예상보다 긍정적
 - 미국 재무부, 2월 외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는 감소, 국채수익률 상승 등에 기인
 - 중국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기유동성자원창구(MLF) 금리 동결, 최근 경기회복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일부 기업실적 관련 긍정적 평가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 및 반도체 관련주 매도 증가하며 약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5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전망 등이 주요 요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양호한 제조업 지표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17.1원, +6.0원) 0.6% 상승, 한국 CDS 상승

		4/17일	4/14일	전일대비			4/17일	4/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51.3	4,137.6	0.33%	국채 금리 10y	미국	3.60%	3.51%	9bp
	유럽	466.84	466.91	-0.01%		독일	2.47%	2.44%	3bp
	중국	3,385.6	3,338.2	1.42%		영국	3.69%	3.67%	2bp
	일본	28,515	28,493	0.07%		CDS 5y	한국	45bp	44bp
	한국	2,575.9	2,571.5	0.17%	위험 지표	중국	68bp	68bp	0bp
	달러지수	102.09	101.55	0.53%		EMBI+	-	407	-
환율	유로화	1.0926	1.0992	-0.60%		VIX	16.95	17.07	-0.70%
	엔화	134.47	133.79	-0.51%		WTI유	80.83	82.52	-2.05%
	위안화	6.8799	6.8691	-0.16%	원자재	구리	406.6	410.7	-0.99%
	원화	1,311.1	1,298.9	-0.93%		금	1,995.2	2,004.2	-0.4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 필요

-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며, 목표(연율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보기 원한다고 발언. 최근의 연방기금금리(4.75%~5.00%)는 이례적으로 높지만, 경제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 노동시장은 매우 양호한 상황에서 다소 양호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
-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 달러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미국이 달러화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이날 발표된 주요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 4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10.8을 기록하여 전월(-24.6) 대비 상승하며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이번 결과는 신규수주 호조, 공급차질 개선 등이 주요 원인. 투입가격의 경우 상승 압력이 완화된 반면 판매가격은 상승세가 지속. 고용은 3개월 연속 감소
- 4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45를 나타내 전월(44) 대비 상승. 이번 결과는 건설업체들이 모기지 금리의 추가 하락 및 이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 다만 50을 하회하여 전반적인 주택시장 여건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 세부 구성요소 가운데 현재 판매여건은 51을 기록하여 50을 상회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BofA, 주요 기업 실적발표 시작. 초기 결과는 예상보다 긍정적

- S&P500 기업 중에서 3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 이 가운데 주당순이익(EPS)과 매출이 예상을 상회한 경우가 각각 90%와 73%이며, 이는 '12년 이후 가장 좋은 모습. JPMorgan Chase와 Citigroup 등 주요 은행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점이 전체 결과에도 긍정적 영향
- 한편 최근 위기설이 부각되었던 증권사 Charles Schwab은 1/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가 상승(3.9%). 경영진은 예금이 전년동기비 11%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반면 State Street는 순이익이 전년동기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하락(-9.2%)

■ 미국 재무부, 2월 외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는 감소, 국채수익률 상승 등에 기인

- 외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는 7.344조달러로 1월(7.402조달러) 대비 줄었으며, 이는 국채수익률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국가별로는 일본이 미국채 보유 규모가 가장 크지만 전월 대비 감소(1.104조달러→1.082조달러). 2위 국가인 중국 또한 전월 대비 줄어(8594억달러→8488억달러) 7개월 연속 감소세

■ BIS 사무총장, 금융안정 위협을 경고. 인플레이션 안정 위해 고금리 장기화 중요

- 국제결제은행(BIS)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수 년 동안 지속되면서 금융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 또한 만성적 고물가 상황 해결을 위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ECB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우선. 전문가들은 3회 추가 금리인상 예상

- 라가르드 총재는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의 재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는 먼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한 후에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독일 중앙은행의 나겔 총재는 최근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지만, 금년 여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다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첨언
- 한편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ECB가 금년 5월, 6월, 7월 3회에 걸쳐 각각 0.25%p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최근 경기회복 반영

- 현행 2.75%인 1년 만기 MLF 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 이번 결과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인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 한편 시중은행에 1년 만기 MLF를 통해 170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 이날 만기가 도래한 1500억위안 고려 시 유동성 순공급액은 200억위안으로 추정
- 이번 결과를 감안하면 4/20일 발표 예정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동결될 가능성.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연내 소폭의 인하가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8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만 이사 강연, 중국 1/4분기 성장률, 3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은행권 불안, 국채수익률 전망 관련 불확실성 가중 - Financial Times

(Banking turmoil creates uncertain outlook for bond yields)

- SVB 사태 이후 투자자들은 정책금리 및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에 의구심. Fidelity 등 일부 기관은 은행권 문제와 높아진 경착륙 가능성, 미국 기업들의 신용경색 위험 등으로 하이일드채권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낮출 수 있다고 예측
-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물가목표 달성 실패로 최종금리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경계. 물가와 금리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채권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Ice BofA Move Index가 '08년 리먼 사태 당시 수준까지 상승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정책 대응, 자국의 입지 악화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How the Ukraine war has divided the world)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은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동결 등 제재 강화에 초점.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관련국은 러시아와 무역을 지속. 이들 국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 특히 중국은 다자외교를 확대하며 위안화 사용 장려 등 자국 이익을 도모
- 그동안 미국이 추진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외교 및 경제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주요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위협하게 되면, 오히려 세계에서 자국의 입지를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

■ 중국,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로 인한 재정불안 증가 - 블룸버그

(How Can China Contain Its \$8.3 Trillion Fiscal Crisis?)

-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LGFV의 부채규모가 57조위안에 육박하면서 LGFV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증대. LGFV는 공공성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체보다 채무상환 능력이 저조하며 평균 자산수익률은 0.4%에 불과
- 이러한 가운데 지방정부는 부동산 침체 이후 토지 매각 수익이 23% 급감하고 대차대조표가 악화되어 LGFV 지원이 어려운 상황. '14년 대비 LGFV 부채 규모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우발적 위기가 시작될 경우 중국의 민스키 모멘트 발생 가능성도 존재

■ **주요국 예금보험제도 개혁, 은행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 - Financial Times**

(Deposit insurance is key to the confidence trick of banking)

- 주요국 금융당국은 은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금보험제도가 은행의 파산으로부터 금융시스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임을 인식. 다만 미국이나 영국 모두 은행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 등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
- 이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소형은행은 향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채권발행 등과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소지. 다만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관련 비용 증가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

■ **미국의 세금부과 규모, 채무불이행 발생 시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블룸버그**

(Tax Day Cash Will Indicate Just How Close US Is to Defa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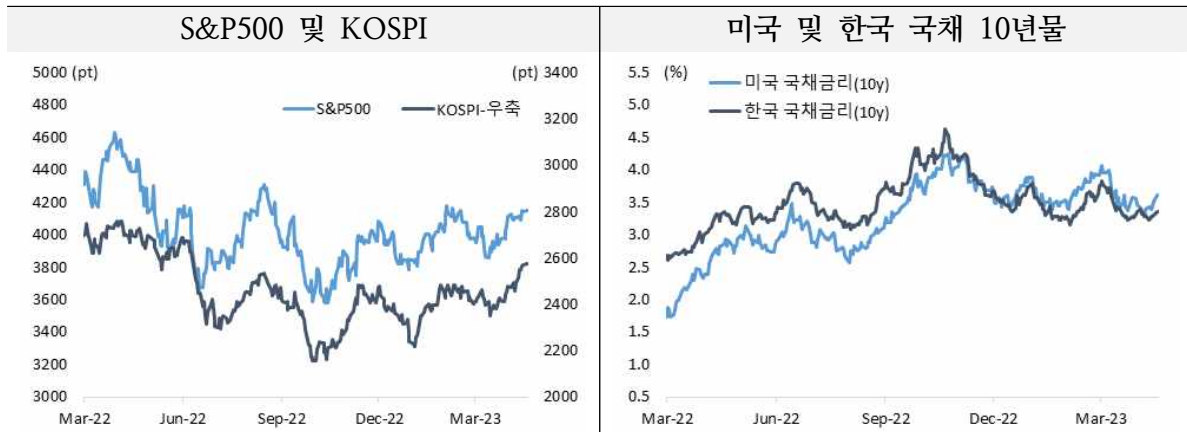
■ **신흥국 채권,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기 양호한 투자기회 제공 예상 - 블룸버그**

(Bond Buyers See 'Best Bang for Buck' in EM as Hiking Cycles End)

■ **중국 위안화 가치, 경제반등 등으로 향후 5% 상승할 가능성 - 블룸버그**

(Yuan May Rally More Than 5% as Economy Rebounds, Pictet Say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